

“리더의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40만 부 베스트셀러 《말 그릇》 리더편 드디어 출간! 리더의 영향력은 ‘지위’가 아니라 ‘말 그릇’에서 나온다.



▲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는 『말 그릇』의 김윤나 작가가 3년 만에 『리더의 말 그릇』으로 돌아왔다. SK, LG, 삼성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에 한 주도 빠짐없이 리더들을 만나고 3~6개월에 걸친 1:1 코칭을 진행했다. 이 책은 그동안 수많은 교육과 코칭을 통해 얻은 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만드는 ‘리더의 말 그릇’에 대해 알려준다.

무엇이 리더의 차이를 만드는가?

“정말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냐!”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당신은 화가 난다. 진행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고, 시간도 빠듯한데 잘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 당신은 회의를 소집한다.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한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채워간다. 이제 당신이 입을 열 차례. 이때 당신의 한마디, 즉 리더의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회의를 시작할 것인가?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렇게 운을 떼다면 그때부터 회의는 책임 떠넘기기가 될 것이다. “지금 장난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팀인지를 확인하는 문장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으박지르면 방어적인 대응책들만 맥없이 오고 갈 것이다. 리더가 불편한 감정을 느

낄 때, 그 힘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도드라진다. 불편한 상황일수록, 리더는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 따라 대화는 다른 결말을 맺는다는 걸.

‘리더의 말 그릇’을 키워 그 안에 사람을 담는 법

사람은 누구나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크기와 깊이만큼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어떤 말 그릇을 가진 리더와 일하는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말 그릇’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말 그릇이 큰 리더는 일의 진행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으박지르는 대신,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바꿔보자.”, “우리가 무엇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어떤 말 그릇을 가진 리더와 일하는지에 따라 성장의 가능성과 성과의

크기도 달라진다.

많은 리더들이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간접적 무시를 동반한 ‘회피의 대화’나 직책과 정보의 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의 대화’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대화 모두 리더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두 가지, ‘조직의 성과’와 ‘사람의 성장’이라는 화두를 잡지 못한다. 리더에게는 성장을 기본으로 목표와 피드백, 지속적인 수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리더의 말 그릇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다.

MZ세대와의 소통, 불확실성의 시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 매출 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전혀 다른 일처리 방식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가정들이 유

효하지 않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과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리더의 말 그릇’이다. 리더의 영향력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하는 것. 리더가 무엇을 경험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웠고, 그것이 선택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할 때 비로소 리더의 아우라가 생긴다.

말 그릇을 키우는 것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법이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황이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쉽다. 리더의 말 그릇이 영향을 끼칠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이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때, 엉뚱한 보고서를 마주하게 될 때. 긴장되고 불편한 순간, 당신은 어떻게 첫마디를 꺼낼 것인가?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문의 070-4244-0850



《비율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비율수록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리더의 말 그릇》 김윤나 지음 | 카시오페아